

이기봉 개인전 <Where You St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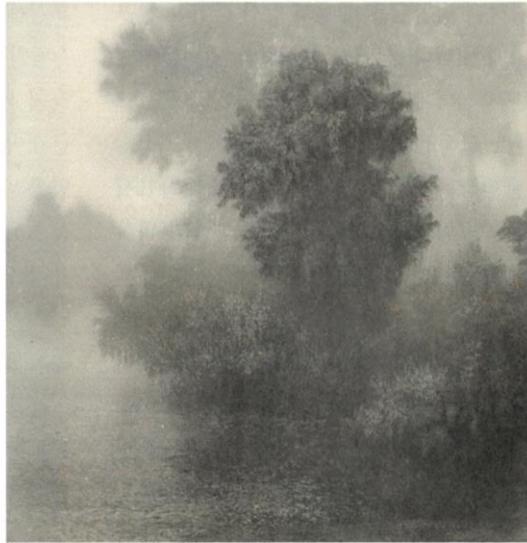
December 2022 | 김지용 에디터

Page 1 of 2

힐링 스페이스

이기봉 개인전**<Where You Stand>**

오랜 기간, 자신만의 화법으로 자연을 재해석한 작가 이기봉의 개인전이 국제갤러리를 통해 개최된다. 이번 개인전에서도 이기봉은 깊게 들여다볼수록 아득히 보이는 안개와 풍경들을 섬세한 시각으로 풀어냈다. 에디터 김지용



이기봉(b. 1957)
<Where You Stand D-1> 2022
Acrylic and polyester fiber on canvas, 186 × 18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하얀 전시장 벽면 너머로 피어오르는 안개는 이기봉이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 서사이자 도심 속 펼쳐지는 숲의 아침이다. 플렉시글라스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겹쳐 표현한 화면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서 있는 공간마저 의심하게 한다.

그의 조형 언어인 '안개'는 사실적인 시각 효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일상의 탈출구를 제시한다. 작가는 아크릴 물감으로 나무를 그린 후 플렉시글라스, 또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캔버스 위에 겹쳐 작업을 완성했다. 이렇게 겹쳐진 화면은 공간 속에 숨을 주입하듯 입체성을

부여하고 사실적인 시각 효과를 전달한다.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 안개가 살포시 내려앉은 화면은 단순히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지표 가까이에서 작은 물방울이 뜬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만의 조형 언어인 안개를 통해 말하고자 한 바는 은은하게 피고 지는 물과 안개의 관계를 통해 생성과 소멸, 즉 자연의 순환 구조에 대한 작가 본인의 사색을 담고자 한 걸로 보인다. 자연조차 순환고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허무함을 표현한 작가만의 ‘바니타스(Vanitas)’. 이는 30여 년간 매일매일 습한 산중턱의 작업실에서 아침마다 맞이했던 창문 너머의 풍경이 늘어놓은 이야기보따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갖는 주요 모티브는 물과 안개다. 이들은 사물이나 존재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초월적 영역에 다가서게 만든다. 평상시 드러나지 않았던 사물의 다른 측면에서 어떤 정신이나 영혼을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 이기봉

이기봉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미겔 데 우나무노(Miguel de Unamuno)의 소설 《안개》 속 구절이 생각난다.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현실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이 모든 것은 신 아니면 누군가의 꿈은 아닌가? 그래서 그가 깨자마자 사라져버릴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잡들게 하고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도하고 찬미의 노래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종교의 모든 예배와 의식은 신이 깨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꿈꾸도록 하기 위한 방식은 아닌가?” - 소설《안개》중

언어로 그 의미가 제한되는 모든 것들. 영원할 것 같은 순간과 특별할 것 같은 나의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환상과 내 자아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서 견고한 ‘나’에 대한 인식이 탄생한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게 단일하지 않다는 것. 속을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안개처럼 말이다. 그만큼 그의 조형 언어인 ‘안개’는 공간의 구분을 은은하게 녹여낸다.

국제갤러리는 2022년 한 해의 대미이자 새로운 시작을 장식할 그의 개인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점 K1, K2와 부산점에서 계속 진행한다.

*바니타스 죽음이나 변화의 상징을 담은 17세기 네덜란드 장르의 정물화.